

【광운대 박영식(朴煥植) 총장】

# “기초학문에 더 큰 애정을”

광운대 박영식총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은 건물·시설쪽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쯤 지나면 투자 또한 IT에서 BT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생명공학과’ 개설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 일시 : 8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광운대학교 총장실



■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두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문명의 발달과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과학기술이 자연환경은 물론 윤리와 도덕 등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특히 인간성의 파괴는 큰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쟁사회로 바뀌어 갔고 경쟁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 세계의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개발을 10년 정도 멈추자’고 선언할 수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의식과 문화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과제로 압니다.

■ 광운대학교의 연혁과 교육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34년 무선강습소 개설

뿌리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래 전자시대를 예견한 조광운 박사께서 조선무선강습소를 개소한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1948년 조선무선중학교가 문을 연 뒤 1962년 동국전자공과대학이 설립되었고, 다음해 광운전자공과대학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개교 초기 전자공학과, 무선통신학과, 통신학과, 통신공학과, 응용전자공학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전자정보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에 학

부학생 7천여명, 대학원 학생 1천5백여명 등 8천5백여명 규모의 대학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육이념은 참과 빛입니다. 진리를 탐구하여 그 빛을 온누리에 비친다는 뜻입니다. 교육이념과 연관해서 설립자께서 주신 실천공행(實踐窮行)이란 학훈(學訓)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해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 총장님의 광운대학교 기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요.

광운대학교를 우선 공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대학이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학생 모두가 주인이 되는 대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와 민주적인 행정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광운대학교가 통신공학에 뿌리를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과대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분야,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역점을 두어 특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광운대학교의 21세기 비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 인지요.**

광운대학교는 지난 20세기 동안에는 IT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1세기도 그 초반은 IT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계속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 전자정보대학 특성화를 위해 연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과 중점 육성**

그러나 21세기는 BT의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투자가 IT에서 BT로 옮겨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나노생명공학과'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가 개설되면 이 분야에 특별히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구능력 평가에서 언제나 10~15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간 10억원의 교내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4백만원, 외국 학술지의 경우 7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순수학문 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기본적으로 학부제 운영은 옳은 것으로 봅니다. 학부제란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주고, 사회가 원하는 분야에 많은 인력을 배출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응용학문 쪽으로 몰리다 보니 기초학문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응용학문에의 몰입현상과 기초학문의 고사현상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부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제를 처음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과제는 독일과 일본이 했고 우리는 이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미국은 학부(college)에서는 기초학문만 합니다. 응용학문은 학부를 마친 후 대학원(school)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부제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부에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 응용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부제를 시행할 때 기초와 응용을 미국식으로 분리한 후 실시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학부제 운영의 취지를 살려 나가

려면 미국과 같이 기초학문은 대학에서 하고, 응용학문은 대학원에서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속히 고쳐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1학년 학생수가 1천7백55명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초학문의 학생수도 적은 편이어서 쏠림현상이 적습니다. 그래도 이를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제의 단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 **총장께서는 연세대 총장(1988/8~1992/7)과 교육부 장관(1995/5~12)을 비롯해서 한미교육위원회 위원(1977~198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1990/4~1992/4), 교육부 대학교육심의회 위원(1991/2~1993/2) 등 교육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한국에 대학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1945년 광복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역사는 반세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물을 짓고 기본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 기적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50여년 동안 자기 몫을 제대로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이 한 것은 양적 팽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

년에서 85년까지의 20년 사이에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도 기업다운 기업이 없었습니다. 재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이 되면서 30대 재벌이 등장합니다. 재벌이 등장하면서 대학생의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의 학생은 졸업만 하면 취직이 되었습니다.

### 경쟁력 제고에 투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정부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와중에서 대학은 물론 정부도 학원안정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대학이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90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와 함께 세계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세계화 바람은 경쟁력을 요구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이지요. 대학의 질과 함께 경쟁력이란 개념이 1990년대부터 큰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란 말이 나오면서 대학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학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대학들이 이제는 건물이나 시설 쪽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학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대학원 교육 문제입니다. 일반대학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70년대까지를 초창기라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학원은 석사학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원 전성시대를 맞습니다. 80년대 초반 대학정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수요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만 되어도 대학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각 대학의 교수수가 차면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교수가 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거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 박사홍수, 박사실업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박사와 외국박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 풍토는 국내박사보다 외국박사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박사는 취직이 거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전에는 석사과정까지는 국내에서 하고 박사과정만 외국에서 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외국박사를 선호하다 보니 석사마저 외국에서 한 사람을 우대하는 풍조가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로 될 수 없는 우리의 대학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박사가 된 사람들이 교수로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은 사람만을 교수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박사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교육수

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식민지가 됩니다. 교육 식민지가 되면 과학, 경제, 정치, 문화 등이 식민지로 됩니다. 교육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책을 확실한 비전을 갖고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때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최근 들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 사이의 높은 담을 헐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인문과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전공을 달리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문 자체가 너무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사회과학과의 대화뿐 아니라 인문학 안에서도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려면 우리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학부제 운영에 대한 소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학부교육은 기초학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문 사이의 높은 담은 교육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과학기술계가 응용학문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학문 분야 발전에도 애정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